

10/2/22

설교 제목: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1 장 1-57 절

- (요 11: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 (요 11: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 (요 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 (요 11: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 (요 11: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 (요 11:6) 나사르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절관주** 요 10:40
- (요 11: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 (요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절관주** 요 10:31
- (요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절관주** 시 119:130, 잠 6:23
- (요 11: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 (요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 (요 11:12)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 (요 11: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 (요 11: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 (요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 (요 11: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 (요 11: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르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 (요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 (요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 (요 11: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 (요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절관주** 요 11:25
- (요 11: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단 12:2, 행 24:15
-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요 11: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 (요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 (요 11: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 (요 11: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 (요 11: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 (요 11: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 (요 11: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요 11: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 (요 11: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절관주** 요 9:7
- (요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 27:60, 눅 24:2
- (요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 (요 11: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절관주** 요 12:30

-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 (요 11: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 (요 11: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절관주** 요 12:11
- (요 11: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 (요 11: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절관주** 눅 16:31, 막 14:1
- (요 11: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 (요 11: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 (요 11: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절관주** 요 18:14, 요 19:12
- (요 11: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 (요 11: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절관주** 갈 3:28
- (요 11: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절관주** 요 7:1
- (요 11: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절관주** 대하 13:19
- (요 11: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절관주** 요 2:13, 요 5:1, 요 6:4
- (요 11:56)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절관주** 요 7:11
- (요 11: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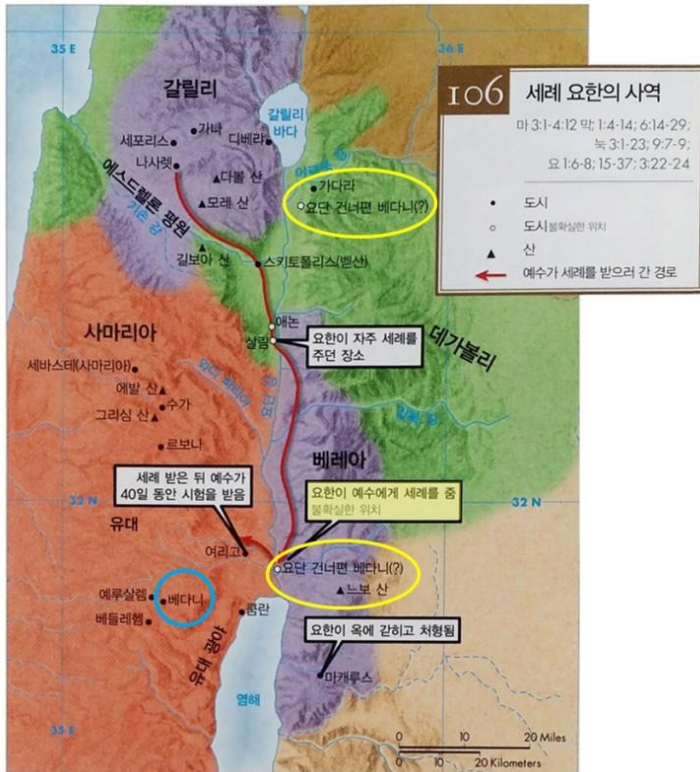
본문은 본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여덟 가지 표적 중 일곱 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제외하면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중 으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데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사람이 찾아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 11: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 11: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요 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며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 속히 가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말을 부연하지 않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만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서 알아서 서둘러 나사로를 찾아가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르십니다.

(요 11: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11: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 11:6) 나сар이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요 11: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요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전절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сар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를 찾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 말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요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요 11: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낮이 열 두 시간이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세상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은 낮 곧 세상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예수님의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죽으실 것이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고 하시며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요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 11:12)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요 11: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요 11: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의 일차적인 죽음을 보시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일차적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당신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요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쳤더라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병자를  
치유하신 일들 중 하나였을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표적을 보여 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 접속사 '그러나'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앞 뒤 문장의 성격상 '그러나'보다는 '그러므로'가 자연스러워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나'를 사용하신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에게로 가자는 의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리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리로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면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행 20: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 도마가 말합니다.

(요 11: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영웅심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요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요 11: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받고 곧장 오셨다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이 말씀을 부활의 날에  
살 것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 11: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본서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 당신의 중대하고 비범하신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언니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찾으신다는 말을 전해들은 동생 마리아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요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요 11: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요 11: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요 11: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 11: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서 읍니다.

마리아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탄 마귀들에게 통분하셨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휘둘러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에게 연민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지가 4 일이 되었습니다.

(요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말을 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11: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부류입니다.

(요 11: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부류입니다.

(요 11: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영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해 들었을 때 바로 찾아가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위대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표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 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지요?